

"슬픈 자화상에 보내는 위로"

2018 화엄음악제, 3일간 일정 마쳐

영성음악회와 영산대재, 불교문화체험 등 호남최대의 불교음악제인 '2018 화엄음악제'가 구례 화엄사서 9월 14일부터 3일간의 일정을 마쳤다.

음악제는 첫날 선다회의 다례의식을 시작으로 오마르 베나실라&정현의 연주공연, 스페인 전통음악 나옘의 영적공연, 권송희의 판소리 랩이 펼쳐졌다. 이튿날은 국보 제301호인 화엄사 영산회괘불탱을 복원 모사한 12m 크기의 탱화를 괘불대에 달고 어산어장 인묵스님 등이 봉행한 화엄사영산괘불대재와 노영심, 엘로이즈 진, 김유나 등 다양한 예술인들의 공연을 감상하는 화엄콘서트가 화려하게 열렸다.

마지막 날인 16일은 정현, 선다회의 차훈명상, 김대규(건축가), 최상을&신경아의 '세상의 끝에서 들려주는 음악이야기'가 행사의 대미를 장식했다.

주지 덕문 스님은 "영성은 쉬운 듯 어렵고, 가깝지만 멀리 있다. 얻을 것이 없는 까닭에 걸림이 없고, 걸림이 없으므로 두려움도 없으며 늘지도 줄지도 않는 것"이라며 "이번 화엄음악제의 주제는 진혼이다. 진혼은 망자의 위로가 아닌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보내는 위로"라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대중과 나눈 불복장 가치

용화사, 삼존불 복장 및 점안법회

부처님 복장의 진면목을 확인할 수 있는 부처님 점안법회가 열렸다.

태고종 담양 용화사(주지 수진)는 9월 16일 대웅보전에서 삼존불 개금불사 회향법회를 봉행, 불복장(佛服裝)의 대가였던 묵담 스님(1896~1981)에게 직접 전수받은 수진 스님의 삼존불 복장 및 점안행사 시연을 펼쳤다. 점안법회에는 금강선원 총채 활안 스님, 박기정 신도회장을 비롯해 신도 300여 명이 참여한 가운데 50년 만에 다시 개금과 복장을 진행한 삼존불 점안을 축하했다.

수진 스님은 기념사를 통해 "용화사 부처님은 묵담스님께서 50년 전 전주 관음선원에서 여법하게 복장하시어 담양까지 이운해 모셔왔다"며 "불복장은 황금보자기에 다섯 개의 보배병을 넣어 부처님에게 생명을 불어 넣어주는 의식이다. 묵담 스님께서는 불복장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잘 전승하기를 유촉하셨다"고 설명했다. 양행선 광주전남지사장

"영화가 이어준 소통 세대 잇는 매개되길"

Interview

서울노인영화제 집행위원장 희유 스님



김지원 기자 jayjace@hyunbul.com

복지관 내 자체 상영회서 시작
세대불문 노인영화제로 발돋움
영화제작 · 도슨트 기반 마련해
어르신 지속적 참여 기회 제공

"11번째 서울노인영화제는 지난 10년을 기반삼아 새로운 10년을 준비하는 마음으로 꾸렸습니다. 세대 간 극명한 인식차를 보인 초창기와 달리, '노년의 삶'을 다룬 영화의 시도는 다양해지고 참여분야는 세분화됐습니다. 앞으로 서울을 넘어 전국 각지, 세계로 뻗어나가는 영화제로 성장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제11회 서울노인영화제(이하 SISFF) 개막을 앞두고 9월 13일 트레일러 영상과 본선 진출작이 공개됐다. 청년 · 노인감독 부문으로 나눠 전국공모를 받은 출품작들은 최종 심사를 거쳐 추후 시상한다. 6회부터 집행위원장을 맡아온 희유 스님(서울노인복지센터장)은 19일 본지와의 인터뷰서 이 같은 소감을 전했다.

SISFF의 기원은 서울노인복지센터 회원 어르신들의 정보화교육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노인 정보격차 해소 차원에서 실시한 미디어교육은 영화제작 프로젝트로 이어졌다. 실습한 작품들을 소규모로 다른 회원들과 함께 관람한 것이 2008년 제1회 SISFF까지 이르렀다. 2013년부터는 기존 교육을 체계화해 '영화학교'로 명명해 운영해오고 있다.

"처음 시작할 땐 어르신들이 1인 감독으로 다큐멘터리밖에 못 찍었죠. 하지만 지금은 극 영화도 거뜬히 제작하고 있습니다. 연출, 연기는 물론이고 심지어 음악감독까지 진출하겠다며 영화음악 관련 교육을 센터에 개설해달라는 요청도 있어요. SISFF을 향한 어르신들의 열정은 무궁무진합니다."

청년감독들의 활약도 두드러진다. 11회 SISFF 출품현황에 따르면, 총 203작품 가운데 청년감독 157개, 노인감독 46개로 집계됐다. 2회부터 생긴 청년부문은 꾸준히 증가추세를 보이다가, 올해 역대 최다 참여로 노인 공모량의 3배를 돌파했다. 이는 고령사회가 가속화되는 현실에서 노년층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영화의 힘은 굉장해요. 영화를 매개로 노인의 이야기를 나누며 세대 간 소통을 이끌어낼 수 있었습니다. 청년은 우울하고 무기력하기만 한 노인 외에도 미처 몰랐던 그들의 모습을 인식하고, 나아가 노인문제를 가족의 문제, 사회의 문제로 바라보는 작품을 내놓습니다. 그리고 청년과 어르신은 관객과의 대화 등을 통해 제작 이후에도 서로의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10월 24일부터 27일까지 4일간의 상영이 끝나면 출품작들은 순회상영회에 활용될 예정이다. 업무협약을 맺은 (재)완주문화재단을 비롯, 대학교 사회복지학과, 기업, 노인복지관 등 다양한 곳으로 '찾아가는 SISFF'로 이어진다. 서울노인복지센터는 영화 도슨트 어르신들을 양성, 관련 교육이수자들이 직접 순회상영회서 해설에 참여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왔다.

"이번 영화제의 컨셉은 '있다, 잇다'로, '노인이 있다, 세대를 잇다' '영화가 있다, 세계를 잇다' 등 여러 가지 뜻을 담았습니다. 올해 트레일러 영상은 최초로 외국인 감독의 시선으로 연출했으니 기대하셔도 좋습니다."

"성적보다 봉사 매진한 귀감"

진안 마이산 탑사, 9월 17일
청소년 29명에게 갑룡장학금
故이갑룡 거사 불심 기리며
25년째 인재불사 모범 보여



갑룡장학금 대상자와 장학회 관계자들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마이산 탑사 돌탑을 축조한 이갑룡 거사의 불심을 기리며 장학금을 전달한지 25년, 올해에도 29명의 학생들에게 희망이 전달됐다.

진안 마이산 탑사(주지 진성)는 9월 17일 진안군 산약초타운에서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와 함께 탑사 갑룡장학회 장학금 수여식을 진행했다. 이 자리에는 갑룡장학회 이사장 진성 스님을 비롯해 태고종 전북종무원 부원장 도홍 스님, 지방종회의장 법전 스님, 각 지역단체 관계자 등 사부대중 10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갑룡 장학회는 봉사와 선행으로 품행이 단정하고,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학업에 매진해 모범이 되는 학생 29명에게 총 1000만원의 장학금을 수여했다. 수상자는 (사)진안군자원봉사센터에서 추천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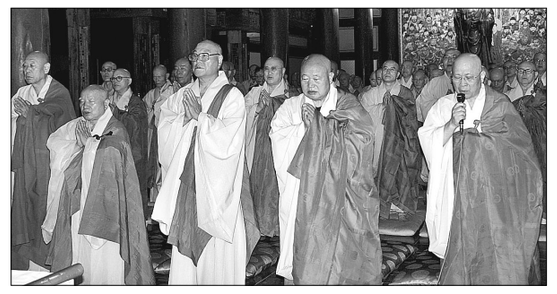
진성 스님은 인사말을 통해 "밝은 진안과 희망을 위해 종교인으로서 해야 할 일을 한 것"이라며 "성적보다는 자원봉사에 힘쓰는 아이들을 위해 준비했다. 적은 액수지만 많은 분들에게 전달해 남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들이 늘어나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장학금을 받은 성가연, 박아름(진안여중2) 학생은 "몇 년간 봉사활동을 통해 알게 된 진성 스님에게 장학금을 받으니 지금까지 해온 일들에 더욱 자부심을 느낀다"며 "앞으로 더욱 많은 현장에서 자원봉사를 하고, 오늘의 고마움을 나눔으로 보답하겠다"고 소감을 말했다.

한편 갑룡장학회는 오로지 나라를 근심하는 마음에서 30년간 탑을 쌓은 이갑룡 거사의 유지를 받들어 학생들의 학업 성적보다 자원봉사활동을 통해 나눔을 실천하는 이들을 선발해 격려하고 있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월산 대종사 가르침 선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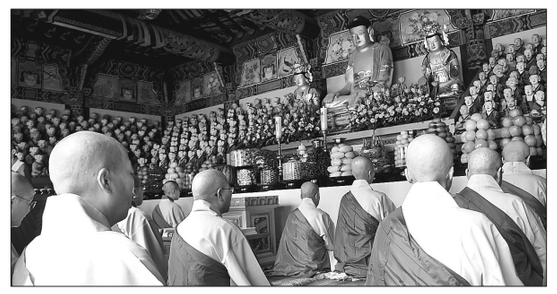
경주 불국사, 21주기 추모다례 봉행



경주 불국사(주지 종우)는 성림당 월산 대종사 21주기 추모 다례식을 9월 14일 무설전에서 봉행했다. 이날 불국사 회주 성타 스님, 법주사 조실 월서 스님, 불국사 관장 종상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동참했다. 월서 스님 "원력을 세워 용맹정진해야 한다는 당부를 다시 깊이 새겨 수행자의 청빈을 설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운문사 오백나한 100일기도

9월 16일 입재… 신도회 1주년 법회도



청도 운문사(주지 진광)는 9월 16일 오백나한전 100일 기도입재 및 신도회 1주년 기념법회를 봉행했다. 입재식에는 회주 명성 스님, 운문승가대학장 일진 스님, 운문사 주지 진광 스님 등 사부대중 500여 명이 참석했다. 주지 진광 스님은 "공양의 의미는 각자의 공덕을 쌓기 위한 것이다. 선근공덕의 인연으로 대중공양을 하면서 정성스럽게 100일 기도를 시작하는 날이 오늘"이라고 강조했다. 손문철 대구지사장

제13회 천태예술제 성료

창작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선봬



천태종(총무원장 문덕)은 9월 15일 서울 KBS홀에서 제13회 천태예술제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을 개최했다. 제13회 천태예술제는 새롭게 창작된 교성곡 '법화광명의 노래' 총 29곡(서곡포함) 중 11곡을 '묘음으로 피어나는 하얀 연꽃'이라는 주제 아래 연주했다. 박재완 기자

양지국악사

사찰전통 大법고 · 법당천도법고 · 태징 · 목어


대북


2자


태징



서울매장 : 서울시 종로구 돈의동 46-1번지 02)3673-3442,764-2159 / 010-5264-3906
경기도 하남시 하산곡동 445번지 031)793-3906 / 010-5264-3906
계좌번호 : 농협 221098-52-250376 조남양 www.yangjikukak.com

대한명인 제14-406호 대고제작

"새는 지붕"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최신한옥기와강판, 일반기와강판, 스레트형강판, 슬라브
사찰(대웅전, 요사채, 산신각, 전문시공), 창고, 공장, 일반가정집

Q 지붕개량을 해야하는데 돈이 걱정되십니까?
A 가장 싸게 시공해 드립니다
자! 이제 칼라강판으로 해결하세요!!

서울.경기 02-456-8831
강 원 도 019-396-1110
충 청 도 010-6545-3350
경 상 도 010-4187-0062
전 라 도 011-248-6298

가장 저렴한 가격에 제일 튼튼하고 예쁘게 단 하루만에 공사완료!
(전국 어디서나 출장시공해 드립니다)

현 대 칼 라 산 업 지 붕 공 사